



#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서직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



박계숙

한국전문도서관협회의 회장  
kay@etri.re.kr

코끼리 다리 만져보듯 컴퓨터를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정보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컴퓨터의 매력에 빠져 도서관 현장에서 일한지 벌써 30년을 넘어섰다. 오랫동안 나의 직업은 사서였고 나의 업무영역은 정보자료를 다루는 도서관 또는 정보센터라는 공식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었으며, 인터넷과 전자자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도서관의 개념은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도서관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열린 지식공간으로 지역사회에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믿었던 공공도서관마저도 모든 자료를 디지털 세계에 맡긴 채 새로운 역할모색과 더불어 도서관을 대체할 새로운 이름을 찾고 있어 머지않아 도서관이라는 용어조차 사라질까 우려된다.

컴퓨터가 사서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신하고 학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개인의 지적 역량이 향상되면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사서의 업무영역, 그리고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사서들조차도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정체성의 혼돈상태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위기의식과 미래의 꿈을 공유하자

정체나 하락을 수반하지 않는 성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2000년대 들어서 강조된 변화와 혁신 요구는 최근 창조에 대한 논의로 확대·발전하였으며, 이는 어느 분야에 있어서나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미래를 새롭게 도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변화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다. 그러나 지금 도서관계의 위기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디지털 패러다임에 편승하기 위한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사서는 낡은 직업이 될 지도 모른다.

직업의 전문성을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직업이나 전공자와 차별되는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사서직은 주변으로부터 많은 도전과 더불어 위기의식마저 느끼고 있다. 사서직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나 혼자만의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도서관의 변화된 업무영역에 대해 우리 스스로부터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과 우수성, 위기극복 사례, 비전 등을 터놓고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힘차게 발을 내디디야 할 것이다.

### 기본에 충실하되 새로운 것에 주목하자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가 축소되면서 많은 도서관들이 업무영역의 확대와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사서의 전문성이 널리 인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지식과 연관된 업무를 찾아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은 이용자 확보를 위해 이용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서관 경쟁력의 가장 기본은 콘텐츠이며, 도서관은 우선적으로 기관의 특성과 시대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자료의 무수한 탄생과 유통과정은 자료의 양적 증가에 반비례하는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용자 서비스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의 체계적인 조직화가 매우 중요하고 사서가 이 업무에 가장 적임자라며 도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으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경쟁력의 또 다른 요소는 자료 제공에 의한 이용자 만족으로써, 넘치는 자료 속에서 단순히 자료를 찾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이용자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보된 사서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에 이에 부응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 보다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누가 풀어 나갈 것인가?

인류역사가 변화를 거듭해오는 동안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이를 극복하는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 도서관계 또한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서들 스스로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내 직장을 넘어서 그리고 관

중을 초월해서 현장 사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미래는 보다 확고해질 것이다.

필자는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도서관 현장의 대선배로서 어떻게 하면 후배 사서들이 사서직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도서관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최근 전문도서관은 조직이 많이 취약한 관계로 개개 현장 사서들의 역량증진과 상호연결 및 협력을 통한 건인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 서비스, 그리고 도서출판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리하여 도서관 현장의 우수 사례를 적극 공유함으로써 사서들에게 변화와 혁신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었으며 이로써 사서직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은 사서 간에 상호 협력 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사서는 오랜 역사동안 전 세계가 동일하게 정의한 글로벌 직업이었던 만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그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도에서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는 2013년부터 일본전문도서관협의회와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하는데 이어서, 전 세계 전문사서들과 손을 잡기 위해 2013년에는 세계전문도서관협회(SLA) 아시아 지부 국제 컨퍼런스인 ICoASL 2015를 서울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참고: <http://www.icoasl2015.com>)

ICoASL 2015는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와 더불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국회도서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2015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회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제는 '도서관의 새로운 가치 창조 (Creating the New Values beyond Library)'로서, 전 세계 사서들이 모여 도서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 창조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그 결과 사서직의 정체성을 새로이 정의하고 확립하는 국제적인 단합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본 행사는 한국 사서들이 국제 활동 폭을 넓히고 세계 도서관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성큼 다가서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현장 사서들의 노력에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국내 도서관 단체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격려를 바란다. ㉞